

CISPE,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Microsoft 제소

불공정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싱의 효율적인 개선책을 위한 산업 전반의 프레임워크 제안

2022년 11월 9일, 브뤼셀. 오늘 CISPE(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공급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쟁총국(DG Comp)에 Microsoft의 경쟁 문제를 공식 제소했다. CISPE는 Microsoft를 상대로 이미 별도의 제소를 제출한 회원사 두 곳인 OVHcloud와 Aruba를 지원하고 있다. CISPE는 이번 자체 제소를 통해 심각한 미해결 문제를 제기하고 폭넓은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을 대표하게 된다. CISPE는 활기찬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시장의 고객과 공급업체들에게 이로울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

조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Microsoft에서 최근 게시한 발표, 블로그, FAQ 문서를 살펴보면, Microsoft는 반경쟁적 라이선싱 관행을 신속하게 종식시키기 위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계획이나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오히려, 2022년 10월 1일 Microsoft가 일방적으로 도입한 새 계약 약관 목록에는 새로운 불공정 사례가 추가되어 있다. Microsoft가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입장과 조치는 유럽 클라우드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이 파괴하고 있으며 유럽 고객들의 클라우드 배포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에 CISPE는 공식 제소를 통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움직임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제소에서 CISPE는 부문 전반에 걸쳐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현 가능한 단순한 개선책을 제안한다. 이는 바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싱을 위한 10대 원칙의 규정 이행 여부를 감사할 수 있는 관리 프레임워크이다. 프랑스 최고의 디지털 고객 연합인 Cigref와 함께 고안하여 2021년에 공표한 이 10대 원칙은 공표 이후 유럽과 다른 지역의 수많은 공급업체 및 고객 연합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왔다. 이 원칙은 어떠한 시장 지배적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도 자사 우대 가격 책정 또는 차별을 취하거나 고객들을 자사 클라우드 생태계에 록인(lock-in)하여 가둬 두지 못하게 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모범적 행동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CISPE는 이와 관련된 Microsoft의 행위를 지체 없이 추가 조사하고, 공정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정책을 위한 CISPE의 관리 프레임워크를 도구로 사용하여 제안된 개선책을 평가하며, 클라우드 고객을 위한 공정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약관을 보장해 줄 것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요청하고 있다. CISPE의 제소는 또한 독립적인 유럽 감시 기관을 창설하여 모든 시장 지배적 소프트웨어 회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약관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CISPE는 경쟁총국이 이번 제소 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대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내놓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행동하고 Microsoft에 대한 공식 심리를 개최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 문제는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경쟁 시장의 사활이 걸린 심각한 문제이다.